

한국전력공사는 녹색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전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8대 녹색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석탄 가스 복합발전(IGCC),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수출형 원전, 전기에너지 주택, 초고압 직류송전(HVDC), 초전도 기술 등이다.

한전은 8대 녹색기술 개발에 2020년까지 3조1000억 원을 투자해 25개 세부 기술을 세계수준으로 육성, 국내외에서 12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화력발전 부문에 치중된 해외매출을 원자력, 수력, 신재생, 송·배전사업 등으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개발에 주력해 수익사업화 할 방침이다.

한전은 나라 안팎의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그룹사들의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했다.

공해가 적은 원전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경영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2008년 전사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받았고 그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8대 녹색기술 선정



-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청렴도 향상 감사업무협약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은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4개사의 감사조직 상호간 청렴도 및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협약을 지난달 17일 한수원 본사에서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각 사별로 운영하던 내부 신고 제도를 원전산업계 전체로 확대해 24시간 긴급 연락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등 원전산업계 종사자 2만 여명이 부정부패의 상시 감시자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 관련 5개사 '부정부패 상시 감시체제' 가동



이로써 한수원 및 4개 유관기관은 감사업무와 관련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 회계분야나 기술 분야의 감사기법을 상호보완하거나 정보 공유로 산업계의 공통 부분에 대한 감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감사협력 수준을 넘어, 원전산업계 전반에 대한 일관된 감사 기능 확보로 부정부패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타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동발전 · 한전KPS 인도 발전시장 공동 공략

한국남동발전과 한전KPS가 인도 발전시장 진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남동발전(대표 장도수)과 한전KPS(대표 태성은)는 인도 발전시장 공동 개발 및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1320MW급(660MW×2기)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시작으로 인도 소재 석탄화력 발전 프로젝트 공동 개발 및 수행을 진행한다. 필요기술 및 사업정보 제공과 함께 양사의 역할 분담, 실무대표자 선정을 위한 정례 미팅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부발전, 행복도시 열병합발전소 착공

한국중부발전(사장 남인석)은 지난달 25일 세종시 건설지역인 충남 연기군 남면에서 행복도시열병합발전소 건설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남인석 사장을 비롯한 유한식 연기군수, 송기섭 행복도시건설청 차장 등 관계기관장 및 건설공사 참여 업체 임직원이 참석했다.

행복도시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취득하고 환경영향평가, 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 발전소 착공을 위한 제반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번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4,500억 원이 투입되며 2013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열병합발전소는 고효율 가스터빈과 증기 터빈, 원격통합감시 제어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515MW의 전력과 391Gcal/hr의 난방열을 생산하게 된다.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문덕)은 지난달 19일 인도의 발전사업 개발업체인 파이오니어가 만든 특수목적 법인인 파이오니어 가스 파워와 388MW 규모의 가스복합 발전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이오니어 가스 파워는 파이오니어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것으로, 서부발전은 여기에 일부 지분을 참여하는 형태로 참여한다.

이 사업은 인도 뭄바이 남쪽 120km 거리에 있는 마하라슈트라주 빌레 바가드시 산업단지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모두 2억7400만 달러가 투입된다. 2013년말 준공을 목표로 연내 공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운전 및 유지보수를 맡고 인도 최대 기업인 타타그룹 계열 타타 프로젝트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며 국영 가스회사인 게일(Gail)이 연료 공급을 책임진다.

한국남부발전은 이상호 남부발전 기술본부장을 제5대 남부발전 사장으로 선출하고, 지난달 28일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이상호 사장은 전력공급 안정, 기술혁신 선도, 미래성장동력 창출, 조직문화 혁신, 사회책임 완수 등 5대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이 신임 사장은 울산 출신으로 학성고와 울산대 금속재료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뒤 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제1발전소장, 하동화력본부장, 기술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부발전, 인도 가스복합발전사업 진출



제5대 이상호 남부발전 사장 취임



동서발전, 인재육성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이 장학 사업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는 지역인재들을 지원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동서발전의 장학 사업은 사업소가 위치한 당진, 울산, 호남, 동해, 일산 등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 대학생이 대상이다.

사업장별로는 당진화력이 올해 총 940여명의 학생들에게 4억7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건설 초기인 1994년부터 당진군내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총 6441명의 학생들에게 약 27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울산화력이 164여명에게 1억3000여 만 원, 호남화력이 80명에게 3300여 만 원, 동해화력이 460여명에게 1억4000여 만 원을 지원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일산열병합은 상반기에 60여명에게 2400여 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4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동서발전은 장학사업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 학습 기자재 지원,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전력기술-에너지기술 연구원, 중기 우수기술 실증연구 사업화 지원

한국전력기술(대표 안승규)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황주호)과 발전에너지 분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발전에너지 분야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상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해당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유망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사업화(R&BD)를 추진해 에너지 분야 공생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 잠재력이 큰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해당 중소기업과 실증연구를 공동 추진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R&BD 사업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 등 지원책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기술은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보유 기술에 대한 실증연구와 사업화모델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부산 화전산단서 준공식 ‘스마트그리드 기업 도약

LS산전이 11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의 고압직류송전(HVDC) 생산기지를 마련하고 차세대 송전기술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HVDC는 고압전기를 멀리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설비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LS산전은 지난달 24일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화전산업단지에서 구자균 LS산전 부회장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부산시,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HVDC 부산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LS산전은 향후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에도 진출하는 등 2019년까지 HVDC 분야에서 최대 1조75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HVDC 부산공장은 1만1157m²(약 3375평)에 건축총면적 5910m²(약 1788평) 규모로 건설됐다. 특히 부산공장은 교류를 직류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HVDC 핵심기기인 ‘사이리스터 밸브’ 생산라인을 신설했다. 특히, 부품을 들여와 성능을 검사하고 이후 조립, 시험, 시운전에 이르는 일관생산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LS산전, 국내 첫 HVDC 생산기지 구축

● 1조 4000억 원 규모... 10월 말 계약

대림산업(대표이사 김종인)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1440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한 낙찰통보서(NOA)를 받았다. 대림산업이 해외 복합화력발전소를 수주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제다 남동쪽 100km 지점 해안가에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계약금액은 1조 3992억 원으로 예상된다. 수주금액은 바뀔 수도 있으며, 이달 말 정식 계약을 맺고 연내 착공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면 해외 수주 규모는 4조 원을 넘어서며, 올해 목표치 6조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대림산업은 예상하고 있다. KEA

대림산업, 사우디 화력발전소 수주